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새내기 배움터 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5. 02. 14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방학 간의 꾸준한 연습으로 인한 실력 증진,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을 전해주고 동아리 소개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예술디자인대학 A&D 홀</p> <p>활동내용 및 소감 : 겨울방학 동안 실력 증진을 위한 많은 연습을 한 후 새내기 분들 앞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1~2월 내내 합주를 진행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완성도 있고 멋있는 무대를 새내기 배움터에서 선보이는지가, 새내기 분들에게는 대학생활 동아리에 대한 첫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다.</p> <p>이번 공연 곡은 노래를 몰라도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다. 보컬의 끼와 더하여 그루브를 탈 수 있는 기타, 베이스 리프를 갖고 있는 터치드의 highlight, 목까지 굽으며 보컬의 압도적인 성량을 보여줄 수 있으며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 밖에 없는 난이도의 기타 솔로가 있는 Scorpions의 Rock You Like A Hurricane,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Queen의 We Will Rock You와 YB의 붉은 노을을 준비하였다. 공연을 통해 새내기 분들이 대학 생활의 꽃인 동아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받고, 더불어 이렇게 잘하는 밴드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새내기 분들도 열띤 호응을 보내주셔서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다. 새내기 배움터 공연을 보고 나도 저렇게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동아리에 지원했다는 신입생분들이 다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밴드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5. 02. 18 & 2025. 02. 21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신입생에게 동아리를 홍보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예디대 A&D 홀, 스플라스리솜 리조트</p> <p>활동내용 및 소감 : 겨울방학 동안 합주를 진행하고 2/18에는 신설 학과인 자율전공학부 OT, 2/21에는 외국어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신입생 OT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신입생분들에게 대학 생활의 꽃인 동아리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대학 입학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방학 간 열심히 준비하였다.</p> <p>2/18 공연의 경우 주최 측과의 소통 오류로 공연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앰프와 믹서, 모니터 스피커 등이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사태를 먼저 파악하여 그동안 정기공연 준비를 통해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탈무드 자체 장비를 옮겨와 공연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른 동아리들 공연 때도 mr과 사운드 밸런스를 탈무드 측 엔지니어들이 잡아주었다. 비록 조명은 설치할 수 없어 암전으로만 대체하여 아쉬웠지만, OT 행사의 일부분인 공연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던 상황을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p> <p>두 공연 모두 같은 셋리스트를 사용했다. 터치드의 highlight, Scorpions의 Rock You Like A Hurricane, Queen의 We Will Rock You, YB의 붉은 노을을 준비하였다. 두 공연 모두 관객들이 열렬히 호응해주었지만, 특히 외국어 OT에서 붉은 노을을 공연할 때 모두가 일어서서 함께 뛰며 따라 불러줄 때 너무나 신이 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신입생분들이 공연 후에 탈무드 공연이 가장 에너지 넘치고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해주셔서 더욱 보람찼다. 탈무드라는 동아리를 홍보하고, 음악의 즐거움을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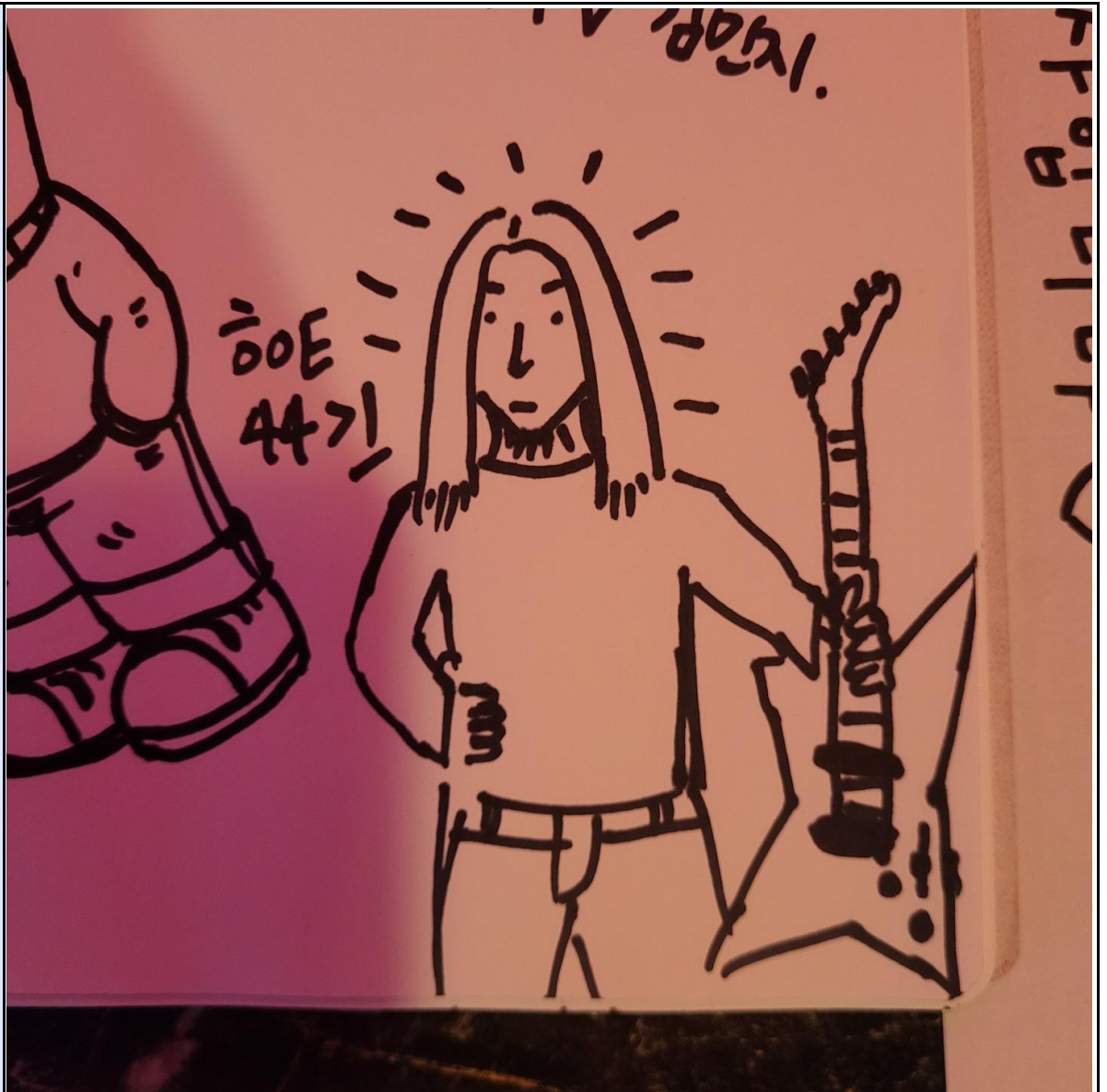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탈무드 동문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5. 01. 12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탈무드 동문 선배들 앞에서 공연하고, 음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과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낙성대 공연하둑</p> <p>활동내용 및 소감 : 44기가 실기수가 되고, 실기수로서의 첫 활동으로 탈무드 동문회를 개최하였다. 동문회는 탈무드 OB 선배님들을 초대하여 그 앞에서 실기수가 공연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다. 실기수 소개 및 공연으로 동문회를 시작하였다. 44기가 신입기수 때 공연했던 가호의 시작,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The strokes의 Undercover Of Darkness, The Volunteers의 Material Girl, The rose의 California, Breaking Benjamin의 Skin을 연주하였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3개월~1년 전에 연주했던 곡을 다시금 연주해보니 실력이 증진되었음을 실감했고, 어떻게 연주하고 노래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한층 더 고민할 수 있었다. 선배들은 실기수의 첫 걸음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공연이 끝나고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들의 활동 당시의 여러 에피소드부터 시작하여 세션 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탈무드의 발전 방향 등등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동문회에 참가하신 선배들 중 본업을 음악인으로 삼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기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통기타와 베이스를 이용하여 선배님들이 반주를 해주시고 원하는 사람들이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고, 즉석 잼을 하며 모든 탈무드인들이 하나가 되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p> <p>실기수가 되며 가졌던 고민들을 선배들과 함께 나누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막연했던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많이 들어, 이를 바탕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탈무드 OB 연합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4. 08. 12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다른 대학교와의 연합 공연을 통해 경희대학교를 알리고, 서로의 음악과 시스템을 공유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2년 이상 활동한 OB가 주축이 되어 음악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보여줌을 목적으로 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건대 인디스타 C&K</p> <p>활동내용 및 소감 : 탈무드 OB 팀과 포항공대의 밴드동아리 브레멘이 함께 연합공연을 진행하였다. 탈무드는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Pantera의 Mouth for War과 같은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메탈 갈래의 곡, 독특한 그루브의 Jamiroquai의 Cosmic Girl, NELL의 유령의 노래, 부서진,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곡 메들리로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곡까지 소화했다. 브레멘은 GNR의 Sweet Child O' Mine, Metalica의 Enter Sandman, Steelheart의 She's Gone과 같은 해외 유명 곡을 주로 연주했다. 두 팀 모두 관객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한 퀄리티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보통이라면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곡들을 연주하면서도,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 만큼 설득력을 가진 탈무드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능력에 대해 관객과 브레멘 측에서 입을 모아 칭찬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경희대 대표 밴드 동아리로서 기수가 거듭되어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p> <p>이번 공연은 탈무드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OB들이 모여 다시 한번 그들의 저력과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음에 의의를 가진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춘계 대동제 공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5. 05. 27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학교에서 주최하는 축제인 춘계 대동제에 참여하여 그간 연습해 온 곡을 공연하며 끼를 발산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운동장</p> <p>활동내용 및 소감 : 본 활동은 탈무드가 교내 축제인 대동제에 출연하여 공연을 한 활동이다. 실기수인 44기와 신입기수인 45기, OB까지 각 기수 별로 연습하여 출연했다. 작년 추계 대동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과 여러 번의 오디션을 통해 경쟁하여 당당하게 무대에 설 자격을 얻어내었다. 45기는 아쉽게도 2차 오디션에서 탈락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번 탈락을 밑거름 삼아 실력 증진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다. 44기는 자우림의 매직카펫라이드와 터치드의 야경을 선보이며 초여름 저녁과 어울리는 신나고 벽차오르는 분위기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매직카펫라이드에서 관객들께서 호응해주는 부분에서 다들 서툴지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는 모습에 더욱 힘을 얻어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OB는 브로큰 발렌타인의 Answer Me와 YB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연주하여 단어 그대로 축제 무대를 부숴버렸다.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열기를 이어나갔다. 본 활동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실력 증진에 힘쓰고 디테일을 잡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실력 있는 밴드와 밴드가 아닌 다른 장르의 공연자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기며 동아리 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2025 탈무드 1학기 정기공연 : Angel Of Death ROCKHEED AC-130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탈무드
활동시간	2025. 06. 02	비고	
활동목적	<p>1. 본회는 밴드 동아리로서 음악에 대한 실력증진과 팀활동을 통한 멤버십 등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p> <p>2. 한 학기동안 연습한 곡들을 동아리 선후배 및 외부인들에게 공연함으로써 통상 밴드에 부합한 활동을 수행하고 한 학기를 정리한다.</p>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p> <p>활동내용 및 소감 : 본 활동은 본 동아리 탈무드에서 연간 2회 진행하는 정기공연으로서 진행되었다. 공연의 이름은 "Angel Of Death ROCKHEED AC-130"로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공격기 Lockheed AC-130을 Rockheed로 재해석한 것이다.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고, 단단하지만 흐름을 잃지 않는 탈무드의 정체성을 이 정기공연에 담아내었다.</p> <p>공연은 신입기수인 45기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검정치마의 Antifreeze, Green Day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를 연주하며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한 곡들로 패기 넘치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동아리에 들어와 처음 악기를 잡아본 사람들도 있는 만큼, 다들 긴장했지만 같은 기수끼리 호흡하며 준비한 바를 모두 쏟아내었다. 이어 실기수인 44기는 한로로의 ㅈ ㅂ, Metallica의 Enter Sandman, Toto의 Stop Loving You, 글렌체크의 60's cardin 등 총 8곡을 소화하며 탈무드를 이끌어가는 실기수로서의 실력을 뽐냈다. 43기 이상의 선배들, OB 공연에선 높은 난이도로 악명 높은 Two Ton Shoe의 Medicine, 하드록의 정신을 보여주는 Fistful Of Steel, Cynical, 5 Minutes Alone 등의 곡을 연주하였다. 노련한 무대매너와 퀄리티 높은 사운드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4기와 OB는 서로서로 지원을 하며 좋은 무대와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돕는 모습에서 부원들간의 화합이 돋보였다. 기수가 거듭되어도 부드럽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탈무드가 될 것임을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홍정범 (인)